

2026. 06. 04 | 6월 1주차

직원의 노후 불안은 회사의 생산성 문제다

재정 스트레스와 ‘근무 중 시세 확인’이라는 두 개의 누수

3명 중 1명

돈 걱정이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응답

주 7.3시간

재정 스트레스로 잃는 1인당 생산성

+1.7%

재정 교육 도입 후 기업 생산성 향상

노후 불안이 회사로 새어 나가는 두 개의 누수

직원이 자신의 노후·자산을 불안해할 때, 그 불안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근무 시간 한복판에서 회사의 생산성으로 전이됩니다.

누수 ①



재정 스트레스가 집중력을 값아먹는다

돈 걱정이 머릿속을 차지하면 일에 쓸 인지 능력이 줄어듭니다. 산만함과 결근, 그리고 이직으로 이어집니다.

누수 ②



장이 좋을 때, 일 대신 시세를 본다

노후가 불안한 직원일수록 장이 좋을 때 직접 매매에 뛰어듭니다. 증시 개장 시간은 근무 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누수 ①

재정 스트레스의 비용 — 숫자로 보면

57%

재정 문제를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은 직원

PwC 2023

주 3시간+

산만한 직원이 근무 중 재정 걱정에 쓰는 시간

PwC 2023

\$1,830억

재정 스트레스로 인한 미국 기업의 연간 생산성 손실

BrightPlan 2024

78%

직원 재정 스트레스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리더

BrightPlan 2024

재정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은 업무 중 산만해질 확률이 약 5배 높습니다.

누수 ②

근무 시간에 새는 집중력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속, '위장 주식창' 등장

업무 메일·엑셀로 위장해 실시간 시세를 보여주는 서비스. 증시 개장(9:00~15:30)은 근무 시간과 정확히 겹친다. — 서울경제, 2026.5.29

하루 1~2시간

고용주가 직원 산만함으로 잃는다고 본 생산성

CareerBuilder

97% 이상

데이 트레이더가 지수 투자만 못한 비율

데이 트레이딩 실증연구 종합

직접 매매에 한눈파는 것은 회사 생산성에도, 직원 본인의 장기 수익에도 손해입니다. 상승장의 순풍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회사 퇴직연금 현황을 점검할 때입니다. 글라이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법정 의무교육 — 퇴직연금 교육

글라이드는 고용노동부 인정 퇴직연금 교육기관으로, 기업의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형식적인 이수가 아닌 실제 퇴직연금 운용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2 직원 퇴직연금 현황 분석

수익률 비교 · TDF 현황 · 원리금보장 비중 · 디폴트옵션 설정 여부.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회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글라이드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현황 진단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글라이드(한국퇴직연금데이터)는 매일경제신문과 MK-Glide TDF Index, 한국경제와 Best 퇴직연금사업자 어워즈를 운영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하기 →